

8/18/19

설교 말씀: 영적 눈을 뜨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0:46-52

- (막 10:46) ○그들이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절관주** 눅 18:35
- (막 10: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 (막 10: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 (막 10: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 (막 10:50)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 (막 10:51)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절관주** 막 10:36
- (막 10: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매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로 인해 바디매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예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매오를 만나 그를 치유해 주셨고 더 나아가 구원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맹인 거지 바디매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사건은 마가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히 의도된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기워져 죽임을 당하시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로마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대국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때에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화를 내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권력을 향하여 가는 영광의 길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영적 눈이 열려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셨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여리고를 나가십니다.

바로 그때에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막 10:46)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막 10: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리고는 바디매오와 같은 사람들이 구걸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관문이라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더욱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지나가는 이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예사롭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대뜸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호칭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렘 23: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렘 23: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이같은 말씀에 의거하여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맹인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디매오는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에 관해 전해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란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바디매오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많은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한 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한 제자들의 믿음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매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그의 담대함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눈을 치유하여 보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사야 35:5-6 절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 35:4)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사 35:5)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사 35: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바디매오는 이 말씀을 이미 들어 알고 이를 근거로 맹인을 치유하신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눈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디매오는 비록 육의 눈은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영의 눈은 바르게 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게 했습니다.

바디매오가 소리를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라도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막 10: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매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반복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매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바디매오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으시기 전 반드시 만나야 할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디매오의 부름에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막 10: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매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걸옷을 버려두고 한 걸음에 예수님께로 달려나왔습니다.

(막 10:50) 맹인이 걸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거지 바디매오에게 걸옷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지금 바디매오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당신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디매오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걸옷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에 달려 나아오는 바디매오의 모습을 보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재물이 많으므로 응하지 못하고 고민하다 결국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디매오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막 10:51)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매오는 솔직 담백하게 보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바디매오의 대답 속에 어떤 미사여구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바디매오가 예수님께 사용한 ‘선생님이여’라는 호칭은 ‘라부니’를 번역한 것입니다.

아람어 ‘라부니’는 히브리어 ‘랍비’보다 한층 높은 더 존칭어입니다.

그러기에 랍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랍비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디매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막 10: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디매오의 육신의 눈이 치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디매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서슴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자마자 바디매오의 눈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이적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세상에서 다시 한 번 입증하여 보여 주신 것입니다.

맹인을 치유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메시아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디매오에게 부자 청년 때와 같이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매오는 치유함을 받은 후에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매오는 자신의 눈이 치유된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맹인인 자신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메시아시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신한 순간 지체하지 아니하고 길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길’, ‘따르다’라는 표현들은 제자도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는 말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며 동시에 그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 9: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요 9:40)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요 9:4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학과 전통이라는 고정 관념에 사로 잡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뜬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머리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 고정 관념을 지워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알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하면 영적 맹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두꺼운 커튼이 내려져 있는 캄캄하고 어두운 방에서 커튼을 걷고 창 밖에 비추고 있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커튼을 닫고 어둠 속에 갇혀 영적 맹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뜨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의 커튼을 활짝 열고 우리를 비추고 있는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